







# 물길굴에 새겨진 희천속도창조자들의 영웅적 위훈

##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애국의 자욱

조선인민내무군

험준한 탱팅의 산발들을 땅 속깊이 가로지르며 즐기 차게 뻗으면서 우리는 지식깊은 끝으로는 거친 풍경에 있는 가지 가지의 위험한들을 들었다. 그 가운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영광투쟁의 날과 달을 수놓아가고 있는 조선인민 내무군 한경국속부대 군인건설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인들은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불가능을 모는 드리운 명예로인정신의 위력으로 선군시대의 새로운 속도,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며 대고조의 진격로를 암장에서 뛰어제껴야 합니다.』

두해전 가을이었다. 물길굴공사현장에서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땅을 흙뻑 흘리고난 부대지휘관은 유패에 환동무는 금방 나붙은 환장의 속보를 미하게 되었다.

『오늘현재 작업정 300m 계선 돌파!』

(300m 돌파. 그러나 기본불입구까지 400m 남짓 하군.)

먹물이 제마르지 않은 속보 앞에 그는 한동안 서 있었다.

부대가 자진하여 말은 공사구간은 작업경길이 700여미

나되는 가장 어려운 물길굴구간의 하나였다. 처음 공사지휘부일군들은 은근히 걱정하였다.

한것은 여러 중요한 대상건설장들에서 단련된 대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금방 입대한 대원들이 부대의 파번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연한 걱정이었다. 부대가 공사현장에 당도한 날 저녁 현장지휘부천막으로 출출이 들어서는 군인들이 있었다.

『동물들이 어떻게?』

『위대한 장군님께 발전소원공의 보고를 드리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희천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군인들의 뜨거운 눈빛을 대

한경국 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